

“군산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강성욱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국가균형발전법 근거 실질적 산업구조 개편 요청

강성욱(사진) 군산시장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원)가 지난 22일 군산의 산업구조개편을 요청했다.



강 예정자는 정부의 빠른 대처를 통해, 산업위기지역 선포와 관련, “정부의 빠른 대처를 통해,

군산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 처방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미래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강 예정자는 군산 미래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단초로 ‘현대건설기계’의 군산이점을 적극 추진하여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건설중장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산업관련 전기차와 자율주

행차 등 미래형자동차 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설중장비산업은 기존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이직이 용이하여, 현재 군산이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예정자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세계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배터리

기술력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군산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위기지역 지원책을 통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미래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는 행정서비스와 세제혜택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군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농촌진흥분야 주요사업 65개, 143개소 사업대상자 확정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진섭)는 지난 23일 농업인교육관에서 2018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촌진흥분야 주요 65개 사업, 143개소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사업은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사업,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비 재배단지 육성사업, 스마트팜 시설원에 실용기술 확대 보급 사업, ICT 축사관리 생력화 기술 시범,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 반전사업 등 총 사업비 43억 6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초까지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해 사업신청 홍보를 실시했으며, 사업신청 마감 후에는 사업관련 담당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농가포장,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고 이번 심의회에 상정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진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확정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기술보급과 지역특화작목 발굴에 중점을 두고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 건축물 공모전 연이은 수상 쾌거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 아시아 디자인상 수상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가 설계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 이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에 이어 2018 아시아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가 설계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이 2017 한국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에 이어 2018 아시아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디자인상은 조형의 단순성과 복잡성을 벗어나 제품에 대한 창조성 잠재력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규정된 아이디어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상으로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량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선별하는 국제공모전으로 열리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신고 안도’ 교수와 오사카 조형 예술대 ‘요시마루 타카히시’ 교수가 심사위원에 디자이너, 회사,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고 우수한 디자인을 선별했으며, 일본의 디자인 명문인 교토예술대

가운데 원광대 박기우 교수는 Space/Architecture 부문에서 디자인 상을 받아 유명 건축물 공모전에서 연이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글로벌리더아카데미 개강

군산시 우수 고등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글로벌리더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23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창조관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아카데미에는 평가시험을 거쳐 선발된 2~3학년 150여명과 군산 지역 고교로 진학한 성적우수자 50명 등 총 200여명이 참가하며, 제안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종로학원의 우수한 강사진이 과목별 맞춤형 단과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마다 비중이 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최적화된 비교과 교육과정(자기소개서 개별지원, 개별이력관리컨설팅, 소논문 작성 및 논술지도)을 병행 추진해 11월 초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동신 재단 이사장은 “변화하는 입시에 발맞춘 효율적인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 지역 학생들이 더 훌륭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군산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글로벌리더아카데미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직접 추진하고 있는 우수 고등학생 주말학습 학력신장 교육사업으로 현재까지 80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그동안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학력향상,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많은 학생을 배출하는 등 인재양성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YMCA 제20대 강태창 이사장 취임

최근 군산YMCA 제 20대 이사장으로 강태창 전 군산시의회의장이 취임했다.



강태창 이사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군산YMCA 사회체육정책위원장 재직이사,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사회체육정책위원장으로 청소년 축구대회와 군산YMCA 임직원·회원 연합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YMCA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군산YMCA 이사장 취임식은 강태창 이사장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군산YMCA 이사 및 회원, 실무자만 참석하

여 정기총회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이사 및 회원들의 축사로 YMCA 목적과 사명을 받아 하느님 나라 확장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다짐과 선서가 진행되었고, 신임 임원으로서 이강원 부이사장, 한희창 기록이사, 이정수 재정이사, 임원으로서 선출되었다.

취임사에서 강태창이사장은 ‘군산YMCA 목적문을 바탕으로 하느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이사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산YMCA의 다양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 사람들의 아낌없는 조인을 듣고 생명의 소중함과 지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뜻있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교육을 향해

군산대학교 성과포럼 개최

군산대학교 교육개발원은 지난 22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내 이노테크홀에서 ‘제6회 군산대학교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교육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군산대학교의 특화된 교육인증제도인 KS-edu를 비롯해서 인근 우수대학의 교육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복기(復棋)의 기회를 갖고자 개최되었다.

포럼은 최석우 전북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 부단장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발표에 이어, 태성하 선문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연구원의 교육성과 관리를 위한 교과목 인증제 개발 및 적용사례, 민혜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의 학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개선 방안 및 정연희 군산대학교 교육개발원장의 KS-edu 성과 & 군산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군산대학교 정연희 교육개발원장은 “선진대학의 주요 성과들을 공유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3월말까지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 운영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월말까지 징수와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징수와 전직원을 합동 영치반으로 편성해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여 일괄적인 번호판 영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

장 폐쇄결정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하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방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세 체납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어린이 행복돌봄길

동학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 Hub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